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 발언

(2018년 11월 27일)

존경하는 리샤오린 회장님, 박원순 시장님,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주도면밀히 행사를 준비하여 한국과 우호교류와 상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어려운 자리 마련해주신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장쑤성은 문화적 명맥이 유구한 지역이자 예로부터 '해산물과 쌀의 고장', '지상에 있는 천당' 등으로 불렸습니다. 성 전역 관광 자원의 80%가 문화 유산 자원입니다. 중국 전통극의 원조 곤곡(昆曲)이 바로 이 장쑤성에서 탄생했으며, 민요인 '모리화(茉莉花)'도 이곳에서 전해졌습니다. '서유기', '홍루몽', '유림외사' 등 대작들도 중화 문화의 보고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감진(鑒真)의 동해 원정과 정화(鄭和)의 원정도 장쑤성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장쑤성에는 현재 소주원림, 명효릉, 대운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 3곳이 있습니다. 또한 곤곡, 고금예술(古琴藝術), 운금(雲錦) 직조기술 등 무형문화재 10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13개의 국가 역사문화도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다채롭게 축적된 역사와 문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장쑤인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 산업의 화려한 발전도 촉진시켰으며 장쑤와 각국의 우호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굳건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쑤와 한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호 교류의 역사도 매우 유구합니다. 과거 1000여년 전에 장쑤에는 한반도에서 온 상인들과 선원들이 모여 형성된 '신라방'이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기에는 한반도 출신 대학자인 최치원이 중국에서 유학했으며 장쑤성 양저우(揚州)에서 벼슬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저우시에는 아직도 최치원 기념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의 교류는 장쑤성의 대외 교류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류

장쑤성은 1994년에 전라북도와의 자매관계 체결을 필두로 충청남도,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와 잇따라 자매관계를 맺었습니다. 시(현) 차원에서 25개의 자매 결연을 체결했으며, 22개의 도시와 우호교류관계를 맺었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지역은 한국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면서 상호 이해와 민심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무역 투자

한국은 장쑤성에서 2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가장 큰 수입대상지입니다. 2017년 상호 수출입 규모는 641.7억 달러로 당년도 한중 무역 총액의 22.9%를 차지했습니다. 장쑤성도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다수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중 양국 정부에서 장쑤성 옌청(盐城)을 한중산업단지의 협력도시로 지정했고 2017년에는 국무원에서 한중(옌청)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면서 양 지역 간 심화 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욱 유리한 기회와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 관광

한국은 장쑤성 주민이 가장 많이 관광을 떠나는 아웃바운드 관광지입니다. 또한 장쑤성의 중요한 관광객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장쑤성은 한국에서 개최된 문화예술 공연 등 20여개의 특별 문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장쑤성에서 열리는 '문화전', '한국어 대회' 등 일련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쑤성의 '신화일보'와 '전북도민일보'의 협력으로 전라북도에서 한국어판 '장쑤 특집'을 200여 회 발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아이돌 그룹과 한국 드라마 등 현대 문화가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장쑤성에는 한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젊은 '한국 팬'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요리도 남녀노소 즐기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 저는 한국 전라북도가 장쑤에서 개최한 '한국 가요전'과 뉴스 촬영 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으로 대표되는 유구한 역사와 단아한 예술,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등은 장쑤성 주민들에게 매우 깊고 아름다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2014년 한국에 방문할 당시, 한국의 시인 허균의 시구에서 "간과 쓸개를 꺼내어 서로를 비추니, 항아리의 얼음 한 조각을 차

디찬 달이 비추는 듯하다[1]" 는 부분을 인용하여 한중 양국 국민의 우애를 표현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있어서 장쑤성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당 19대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각 분야의 대외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장쑤성 고품질 발전의 견인을 추진할 것입니다. 전국 대외우호협회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저희는 한국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문화 관광 산업을 상호 협력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아래의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1. 정부 소통 강화를 통해 발전 환경을 더욱 최적화

양국 주민이 더욱 긴밀하게 교류하고자 하는 바람을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 장쑤성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롄윈강에서 단체 개항지 도착 비자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관관객은 왕복 페리를 타고 더욱 편리하게 장쑤성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장쑤성에서 '대운하 문화 관광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지방 정부 기관이 참여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양국 문화 관광의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협력의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며 '정부의 추진과 시장의 호응'이라는 문화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관광객 여러분이 더욱 질 좋고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왕래의 편리화 방안과 더 많은 직항 노선 개설에 대해 한국 측과의 논의를 희망합니다.

2.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 실무 협력의 기반 확고화

"마음에서 우러나 사귀어야 오래가는 친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는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한국 문화 주간'과 '대학생 한국어 대회'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라북도와의 교류 협약을 이행하여 격년으로 양측의 극단, 악단, 미술관 상호 방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관광전과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양방향 관광 노선을 소개하고 문화 관광에 있어서 심도 있는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협력으로 공무원 정기 연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 지역 정부의 인문 협력과 상

[1] '간담매상조, 빙호영한월(肝膽每相照, 冰壺映寒月)'

호 신뢰를 증진할 것입니다.

3. 산업 협력 확대를 통해 시장 활력 제고

현재 장쑤성 문화 관광 소비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금, 기술, 인재에 대한 문화 관광 산업의 수요도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양측의 협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저희는 문화 관광 분야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화 관광 산업의 협력과 대화의 장을 만듦으로써 한국 기업의 테마파크, 광고 크리에이티브, 애니메이션과 게임, 영상 제작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영상 제작과 문화 크리에이티브 산업 기지를 조성하고 문화 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기회를 빌어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성향인 장쑤성 주민들을 대표하여 한국인 여러분들이 장쑤성에 방문하여 관광, 견학, 교류를 즐길 수 있도록 정중히 초청드립니다. 장쑤성의 '오나라 풍습'이 지닌 아름다운 문화적 매력 충분히 체험하시고 발전하는 장쑤성의 활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양자간 문화 관광 협력이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각 분야의 실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이것이 양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것이며 한중 양국 국민들의 우호 교류를 촉진하는 데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